

# 제29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대회 참관기

제29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대회가 '화학물질 관련 독성과 암'이란 주제로  
4월 22일에서 24일까지 중국 난징(남경)에서 개최되었다.

글 구정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Opening ceremony



### Opening ceremony

- 1 \_\_\_\_\_ WANG Dexue 이사장(중국 대표)
- 2 \_\_\_\_\_ 김준연 회장(한국 대표)
- 3 \_\_\_\_\_ ITANI Toru 교수(일본 대표)
- 4 \_\_\_\_\_ Opening ceremony
- 5 \_\_\_\_\_ 사회 MA Jun 교수



이번 학술대회는 이전 학술대회와는 달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개최되어 프로그램의 배치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으며, 특히 수요일 오전에는 일본측의 귀국 비행기편이 여의치 않아 장수(강소성) 질병관리본부를 선택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각국 대표인 중국직업안전건강협회(COSHA) WANG Dexue 이사장, 한국 대한산업보건협회 김준연 회장, 일본 노동과학연구원 ITANI Toru 교수의 개회사가 있었다.

Keynote speech



이어서 중국 MA Jun 교수의 “중국의 노령 화에 대한 현재 실태 및 대책”, 한국 한양대학교 송재철 교수의 “작업관련성 인식과 한국의 감시체계의 경험”, 일본 YOSHIKAWA Toru 박사의 “일본의 과로사와 직업건강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 발표가 진행되었다.

Keynote speech

- 1, 2\_\_\_\_ 발표 중인 송재철 교수
- 3\_\_\_\_ 발표 중인 MA Jun 교수
- 4\_\_\_\_ 좌장 왼쪽부터 ZHOU Zhijun 교수, 이세훈 학술위원장, MORIMOTO Yasuo 교수
- 5\_\_\_\_ YOSHIKAWA Toru 교수

## Steering committee meeting



점심시간에 열린 중한일 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 대구에서 2020년 5월 27일(수)-29일(금)에 개최될 ACOH(아시아산업보건학술대회)와 더불어 제30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대회가 5월 29일(금) 오후에 진행됨을 공유하였다.

## Workshop

1. 발표 중인 강동묵 교수
2. 발표 중인 이완형 교수
3. 좌장 강성규 부회장

워크숍 주제인 노화와 직업보전에 대해 일본에서 2명, 한국에서 2명, 중국에서 2명이 발표를 하였다. 한국에서는 부산대학교 강동묵 교수가 “Aging and work ability of Korean workers”, 가천대학교 이완형 교수

## Workshop



가 “Predictors and estimation of risk for early exit from work by poor health among middle and older aged worker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포스터발표 세션에서는 총 40개(한국 12개)의 포스터를 각 출품작당 2분 동안 슬라이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행사 후에는 환영만찬이 개최되었다. 만찬 중에는 중국 전통악기공연과 노래, 덕담이 담긴 서예작품을 현장에서 완성하여 각국 대표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 두 마리의 중국전통사자놀이 등 다양한 공연과 연주회가 펼쳐졌다. 중국 측에서 제공한 해산물과 담십, 각종 채소 및 오리를 비롯한 육류 등의 푸짐하고 화려한 음식과 함께 50도가 넘는 마오타이를 맛보면서 중국의 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편하게 노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손진태 팀장의 유창한 중국 노래와 김치년 교수의 노래까지 더해 한층 흥을 돋우는 시간과 3개국 간에 돈독한 친교를 다지는 시간이 이어졌다.

학술대회 둘째날에는 “화학물질관련 독성과 암”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일본 측에서 3명, 중국 측에서 3명, 한국 측에서 3명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송재석 교수가 “Pesticide and cancer: some consideration on epidemiological study”, 가톨릭대학교 명준표 교수가 “Chemical exposure and cancer in painter and work-relatedness results in Korea”, 강원대학교 손미아 교수가

## Poster s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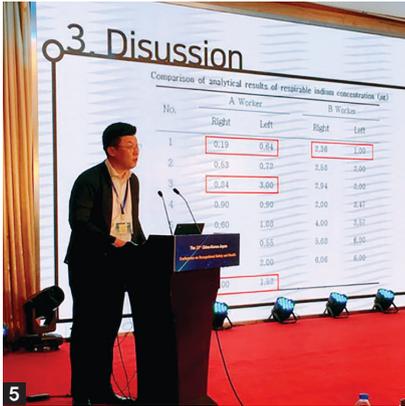




**Poster session**

- 1 \_\_\_\_\_ 대전지역본부 이새롬 관리의사
- 2 \_\_\_\_\_ 경북산업보건센터 이미숙 선임차장
- 3 \_\_\_\_\_ 안산산업보건센터 김민국 선임과장
- 4 \_\_\_\_\_ 본부 환경위생팀 임성국 선임과장
- 5 \_\_\_\_\_ 본부 대외홍보팀 김효진 선임과장

“The needs and strategy for workers’ health and safet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ie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었으며, 질의 응답시간에 각국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점심시간 이후의 포스터 세션에서는 포스터 앞에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자유연제발표 I, II에서는 총 24개의 구두발표가 2개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폐회식에서는 중국의 WANG Dexue 이사장, 한국 강성규 교수, 일본 FUJONO Yoshihisa 교수가 마무리 인사를 해주었으며, ACOH 2020 회장인 연세대학교 원종욱 교수가 2020년 5월 27일(수)-29일(금)에 개최될 ACOH(아시아산업보건학술대회)를 대구의 불거리, 먹거리 및 문화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함께 멋지게 소개해 주었다. 폐회식 중에 대한산업보건협회 김효진 선임과장이 발표한 “The comparison of worker’s

## Symposium



### Symposium

- 1 \_\_\_\_\_ (오) 좌장 구정완 교수
- 2 \_\_\_\_\_ 송재석 교수
- 3 \_\_\_\_\_ 명준표 교수

exposure concentration by sampling position”  
이 최우수 학술포스터상에 선정되어 축하의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마지막 날에는 장수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여 장수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정책, 사업 및 연구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의 응답을 가졌다.

500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장수 질병관리본부에서 8천만 명이 넘는 장수성 인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엄청난 예산과 더불어 특히 산업보건과 관련된 감독, 통계 및 예방 활동 등이 질병관리본부 책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고 있는 중국 보건정책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Closing ceremony





이번 제29차 중한일 산업보건학술대회에는 중국 90명, 한국 40명, 일본 41명 등 총 171명이 등록을 하였고, 한국에서는 11개 대학(가톨릭, 가톨릭관동, 가천, 강원, 고려, 부산, 순천향, 연세, 영남, 전남, 한양)과 3개 기관(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안전보건공단)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내년에는 제30차 한일중 산업보건학술대회가 ACOH와 더불어 개최되기는 하지만, 주니어 그룹 미팅을 만들어 3개국 주니어 연구자들의 교류와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한일중 산업보건학술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더 발전적이고 활기찬 연구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 Closing ceremony

1. \_\_\_\_\_ 강성규 부회장
2. \_\_\_\_\_ 최우수 학술포스터상  
본부 대외홍보팀 김효진 선임과장



끝으로 학술대회 전날에 방문한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방문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기념관에 전시된 2개의 글귀가 두드러지게 눈에 들어와 남기고자 한다. 난징 대학살의 생존자인 Li Xiuying은 “Remember history, but not with hatred”라는 말을 남겨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지점을 지목해준다. 더불어 마음에 남는 또 하나의 글귀를 소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관의 목적은 마음씨가 착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믿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증오를 연장할 의도가 없다. 중국과 일본 국민은 대대로 우애하며 인류의 평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要记住历史、不要记住仇恨

——南京大屠杀死难者李秀英

Remember history, but not with hatred.

——Li Xiuying, a survivor of the Nanjing Massacre

歴史をしっかり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恨みは記憶すべきではない。

——南京大屠杀死难者李秀英さん

2

**我们为南京大屠杀死难者举行公祭仪式，是要唤起每一个善良的人们对和平的向往和坚守，而不是要延续仇恨。中日两国人民应该世代友好下去，以史为鉴、面向未来，共同为人类和平作出贡献。**

The purpose of the memorial ceremony for Nanjing Massacre victims is to recall that every good-hearted person yearns for and believes in peace. We do not intend to prolong hatred. The Chinese and Japanese people should live in friendship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make joint efforts for the peace of humanity.

我々が南京大屠杀死难者のために国家追悼式を挙げるのは、善良な人々一人一人の平和に対する志向と堅守を喚起するためであり、恨みを継続するためではない。中日両国の人民は、代々友好を続け、歴史を鑑として、未来に向かい、共同で人類の平和のために貢献すべきである。

3



4



5

- 1, 6 \_\_\_\_\_ 장수 질병관리본부 방문
- 2 \_\_\_\_\_ 난징 대학살 생존자인  
Li Xiuying의 글귀
- 3 \_\_\_\_\_ 난징대학살 기념관에 전시된 글귀
- 4 \_\_\_\_\_ 장수 질병관리본부장과 인사하는  
김준연 회장
- 5 \_\_\_\_\_ 장수 질병관리본부 역사관



6